

행함이 있는 서밋믿음에 도전해야 할 남은 자

창세기22:16-18, 야고보서2:14-22

정윤돈 목사님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해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영원토록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지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인간이 어리석어서 불신앙하여 사탄에게 속아 죄에 빠져서 이 땅에서 오만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만 하면 모든 신분과 권세가 회복되고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다가 천국 갈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도 강단메시지의 제자가 되게 하시며 그리하여 세계복음화를 위한 주역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치유되며 힘을 얻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미션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야고보서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 하고자 한다. 오늘은 맥추감사주일이다. 맥추감사주일은 칠칠절, 오순절, 초실절이라고도 하며 시기적으로는 새로운 반년을 시작하는 7월 첫째 주로 지키고 있다. 3대 중요한 절기가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 있다. 이 날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열매를 추수했던 절기였다. 이 절기가 신약성경에서는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지 않았는가. 어떻게 보면 복음적인 교회의 생일인 것이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절기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맥추절과 한국의 농사절기가 맞지 않다. 많은 교회 중에서 이 맥추절을 지키는 교회도 있고 지키지 않는 교회도 있다. 구약시대에서는 3대 절기를 지켰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낱짜와 의미가 변화되었다. 오순절을 구약시대의 오순절처럼 지키지 않고 신약시대의 마가다락방에 임하는 성령강림의 의미가 더 커지고, 교회의 탄생이라는 의미가 더 커지게 되었다. 그리고 없었던 절기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절기가 부활절, 성탄절이다. 미국인들이 감사하게 지켰던 절기가 추수감사절이다. 그 추수감사절이 한국에 들어와서 추수감사절에 추석의 의미가 더해지고 선교의 의미가 더해졌다. 추수감사절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이 생명의 열매, 선교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품어야 한다. 반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후반기에 다시 결단하여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절기가 바로 맥추절이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의 조건을 더 많이 주신다. 새롭게 기회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오늘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반년을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리겠다.

야고보서는 야고보라는 분이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보낸 것이라고 야고보서 1장 1절에 나와 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흠여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그러나 이 편지는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된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낸 공관복음, 공동서신서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야고보가 어떤 야고보냐는 것이다. 성경에는 최소한 4명의 야고보라는 사람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이중 유력한 한 사람은 12명의 사도 중 한 사람이었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이다. 그러나 그는 AD.40-44년 경 가장 먼저 순교하였다. 그래서 성경의 여러 가지 내용으로 볼 때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즉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야고보라고 학자들은 생각하고 있다. 교부 오리겐, 유세비우스, 제롬도 그렇게 보고 있다. 혹자는 AD.150년 경 다른 야고보가 기록한 것으로 보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에 대한 내용이 여러 곳에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야고보서를 기록한 저자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할 것이다. 갈라디아서 1장 19절에 보면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라고 기록하고 있다. 여기 보면 ‘주의 형제 야고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다. 이어서 다른 사도들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야고보와 12사도를 구별해서 말하고 있다. 이

로 보건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12사도와 함께 사역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야고보와 다른 형제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요한복음 4장 44절에서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라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그 정도가 아니라 이웃들과 함께 오히려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편에 선 것으로 보고 있다. 마가복음 6장 3절을 보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사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렇다면 언제부터 야고보는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부활 후 야고보를 찾아오신 후부터였다. 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마리아를 12제자 중 한 명인 요한에게 부탁했다. 이로 보아서 이때까지는 야고보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것을 유추할 수 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보면 부활한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라고 기록하고 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충만을 받은 야고보는 그 후 평생 동안 그리스도의 종으로 교회와 성도를 세상과 사탄으로부터 지키는 파수꾼의 삶을 살았다. 야고보는 그 후로 교회와 성도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예루살렘교회를 지켰다.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이유도 복음을 받고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성도들과 사역자들이 쓴 뿌리처럼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야고보서는 신약성경 중 가장 논란이 많이 되어온 성경이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들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였는데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다. 루터는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복음이라고까지 말하기도 했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에서 행위를 강조하게 된 배경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종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면 혼란과 오해를 할 수 있다.

1. 그래서 첫 번째로 믿음의 종류와 발전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첫 번째 성경에는 구원과 직접 관계되는 믿음과 말씀들이 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 출애굽기 3장 18절의 ‘피체사’, 이사야 7장 14절의 ‘처녀가 잉태하여’, 마태복음 16장 16절의 ‘주는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12절의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 요한복음 14장 6절의 ‘내가 곧 길, 진리, 생명’ 등의 말씀은 구원과 직접 관계되는 요절 말씀이다. 이 말씀들은 그 어떤 행위도 필요 없다. 오직 이 말씀들을 믿는 순간, 지금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복된 소식 복음이라고 한다. 이 복음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즉시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하는 것이다.

(2) 두 번째 믿음의 종류로는 순종과 복종이 동반되는 믿음이 있다. 그 예로는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 모세가 홍해를 건너는 것, 여리고 성을 도는 것,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말씀은 불순종해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주역이 되지는 못하는 것이다.

(3) 성숙한 단계에 해당되는 믿음이 있다. 이러한 믿음을 고급믿음, 실천하는 믿음, 서밋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여기에 해당되는 말씀들을 찾아보기로 하겠다.

① 마태복음 5장 39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 대라’

②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복음 안에, 예배 안에 있 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변화시킨다.

③ 마태복음 19장 18절은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 하지 말라’ 어느 순간이 되면 미워하는 마음도 사라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④ 로마서 13장 13절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우리의 모습은 방탕하고 술 취한 모습이다. 그러나 복음 안에 있으면 늦더라도 서서히 바뀌게 된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다.

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서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복음 가진 한 사람만 있으면 변화된다. 여러분의 직장 안에 이런 한 사람만 있으면 다 바뀐다.

⑥ 이렇게 해야 할 중요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이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불신자들은 우리의 모습과 삶을 본다. 무언가 다른 것을 보고 있다. 그래서 전도의 바탕을 만들고 복음을 전하면 된다. 지금까지의 말씀들은 구원의 믿음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말씀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실천해야 할 말씀이며 지금 당장은 100% 실천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실천하기 위해 평생 도전해야 하는 말씀들이다. 주님은 지금 이후로 여러분이 어떠한 죄를 범해도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앞으로 어떠한 행동을 해도 괜찮으니까 마음대로 즐기면서 죄 지으면서 살아도 돼’ 라고 말하고 다닌다면 그 사람은 성경과 복음을 잘못 이해한 사람이다.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은 지목하여 사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4절을 보겠다.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쓴 뿌리가 교회 안에 퍼지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야고보 사도는 이 교회를 너무 사랑해서 이를 지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거룩하고 영적으로 건강하게 지키는 교역자들과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 드리겠다.

(4) 다음으로 성경을 보면 시공을 초월하는 믿음을 선물 받은 인물들이 있다. 그들은 엘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바울같은 인물들이다. 이분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역사를 편집하기 위해서 특별히 사용한 인물들이었다.

(5) 그런데 성경에 보면 지금까지의 이 모든 종류의 믿음을 겸비한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들은 구원의 확신과 순종하고 복종하는 믿음과 현장에서 복음의 빛을 발하고 적들에게까지 인정을 받아 전도와 선교의 문을 열었던 사람들이었고 영육 간에 거룩한 삶을 살았던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었다.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요셉, 다니엘, 에스더, 사도 바울,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로마서 16장에 등장하는 인물들이다. 지금은 당장 이렇게 되지 못할지라도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과 후대들의 절대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단 한 명만 나와도 된다.

2. 두 번째로, 야고보서에 기록된 말씀 중 서밋믿음을 위한 실천리스트들을 찾아보기로 하겠다.

(1) 시험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을 보겠다. ‘내 형제들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의 기준, 수준, 표준과 선택이 말씀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이 과정을 통하여 더욱 더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전도자로 만들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시험과 어려움 중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하겠다. 사실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이 없었으면 우리는 교만하고 정말로 이상한 사람으로 살고 있을 것이다. 야고보서 1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겠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앎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2) 말을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다. 잘못된 말은 불씨와 같이 온 산을 불사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 우리들이 조심하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의 종류들이 참으로 많은 것 같다. 불신앙의 말, 비난하는 말, 자기 자랑하는 말, 비꼬는 말, 다른 사람을 깎아 내리는 말, 시기 질투하는 말, 포기하는 말, 상처를 주는 말, 잔소리, 거짓말, 핑계대는 말 등 참 많이 있는 것 같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을 해야 하겠다. 즉 우리는 믿음의 말, 순종하는 말, 겸손한 말, 긍정적인 말, 살리는 말, 복음의 말, 감사의 말을 해야 하겠다.

(3)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다. 장애인, 노인, 외모, 가난한 사람, 다문화, 인종 등 우리는 습관적으로 차별을 할 때가 많은 것 같다.

(4) 형제를 물질적으로 도와주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이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5) 독한 시기와 다툼을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 야고보서 3장 14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 마음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6) 믿음의 서밋들이 실천해야 할 또 다른 실천리스트는 위로부터 난 지혜 안에서 행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 만일 우리들이 지혜가 부족할 때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지혜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야고보서 1장 5절을 보겠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 참된 지혜는 무엇일까?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 18절을 보겠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거룩)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참된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면 윤리 도덕적이며 성결하고 긍휼하고 관용하는 것을 실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지혜가 성령의 지혜인 것이다. 여러분에게 성령의 지혜가 충만해서 여러분의 현장에서 참된 삶을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7)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또 다른 실천리스트는 깊은 기도로 영적 통신망을 연결하여 치유서밋, 영적서밋에 이르라고 권하고 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16절은 치유서밋을 위한 요절 말씀이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우리가 치유서밋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실천리스트를 실천한 거룩한 사람이 기도했을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성령충만하고, 부족하더라도 더 거룩하고 온전하게 살려고 기도하며 말씀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그 영력을 주시겠다는 것이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은 영적서밋에 대한 대표적인 요절말씀이다. ‘엘리아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삼 년 육 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행위를 강조하는 야고보는 왜 마지막 부분에 엘리아에 대하여 말씀하셨을까? 행함이 없고 거룩한 삶을 살지 않은 사람이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모든 성도는 행함이 있는 서밋믿음을 갖추어서 엘리아와 같은 영적서밋이 되라는 것이다.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기도하면 굉장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서밋믿음을 갖춘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의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1.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위로부터의 지혜, 성령충만한 지혜를 받아야 한다.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는다. 오직 여호와와 영으로 충만할 때 가능하다.
2. 엘리아와 같이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서밋타임을 가져야 한다.
3. 하나님이 나와 우리 자녀에게 주신 평생의 CVDIP를 발견하여야 한다.
4. 하나님의 6가지 도구가 내 인생에 편집되고 계획되고 디자인되어야 한다.
5. 7대 언약의 흐름 속에 있기만 하면 된다. 예수생명, 예수능력 안에서 참사랑RUTC와 237, 치유, 서밋의 주역으로 쓰임 받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언약한 저희들이지만 주께서 불러주셔서 이 시대를 살릴 엘리아와 같은 영적서밋으로 우리를 양육해주신 것, 그러한 미션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와 교회가 이러한 응답을 받아서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응답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4차 산업, 5차 산업을 이끌어가는 후대와 중직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